

SM 걸그룹 ‘에스파’, 개인맞춤형 ‘아바타 실험’ 성공할까

한류그룹 ‘엑소’, ‘레드벨벳’ 등이 소속된 SM 엔터테인먼트가 선보이는 신인 걸그룹 ‘에스파’의 실험이 통할 지 K팝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에스파는 오는 17일 오후 6시 첫 싱글 ‘블랙맘바(Black Mamba)’를 공개한다.

에스파는 한중일 멤버로 구성된 동아시아 그룹이다. 한국인 멤버인 윈터(WINTER·19)와 카리나(KARINA·20), 중국인 멤버 닝닝(NINGNING·18), 일본인 멤버 지젤(GISELLE·20)로 구성됐다.

에스파라는 이름은 ‘아바타 X 익스피리언스(Avatar X Experience)’를 표현한 ‘a’와 양면이라는 뜻의 영단어 ‘에스펙트(Aspect)’를 결합해 만들었다.

무엇보다 앞서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를 만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세계관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예고했다. 데뷔 무대도 19일 오후 6시 유튜브 에스파 채널을 통해 카메라 워킹과 실제 공간이 연동되는 증강현실(AR) 기술로 구현한 공간을 배경으로 삼는다.

에스파는 SM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미래 엔터테인먼트 세상의 핵심 가치로 여기며 최근 강조하고 있는 ‘SM컬처 유니버스(SM CULTURE UNIVERSE·SMCU)’의 실험판이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 기후 변화 등 인류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격동의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는, 온라인 시대의 키(Key)가 될 수 있을 지 시험한다.

서울대 출신인 이수만 프로듀서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노스리지 대학원 컴퓨터공학 석사를 밟는 등 음악과 테크놀로지를 접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일찌감치 많았다.

이 프로듀서는 최근 ‘제1회 세계문화산업포럼(WCIF)’에 한국 문화계 대표 인사로서 참석, “에스파는 셀러브리티와 아바타가 중심이 되는 미래 세상을 투영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를 초월한, 완전히 새롭게 혁신적인 개념의 그룹”이라고 소개했다.

사실 SM의 셀러브리티와 아바타에 관심은

SM, 코로나 이전부터 셀럽·인공지능에 관심 SMCU 실현...디즈니 같은 ‘문화 제국’ 꿈꿔

코로나19 이전부터 있었다. 잡지업계의 침체로 일찌감치 폐간됐지만, 지난 2013년 SM은 ㈜디자인하우스와 손잡고 월간지 ‘더 셀러브리티(The Celebrity)’를 선보이기도 했다. 대중과 그들이 동경하는 유명인, 즉 셀럽의 삶을 소개해주는 패션, 뷰티, 디자인, 푸드, 여행 등을 소개로 삼았다.

아울러 2018년 베트남에서 열린 포럼 등에서는 “앞으로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통해 퍼스널라이즈된 수많은 아바타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초 거대 버추얼 제국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이번 데뷔를 앞둔 에스파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각종 디지털 디바이스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게 되는 시대에는 셀럽의 힘이 막강해진다. 셀럽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파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실세계’에 실존하는 스타, 그리고 ‘가상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스타의 파생된 캐릭터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

SM은 지난 2017년 말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술기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퓨처플레이, 구글캠퍼스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중) 융합예술센터 등과 함께 음악과 인공지능(AI)이 만나는 미래형 콘텐츠를 쇼케이스 형식으로 선보였다.

인공지능 개발자와 작곡가가 공동으로 음악을 작곡하는 ‘몽상지능’, 인공지능 개발자·데이터 아티스트·사운드 아티스트 간 협업으로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플레이 워드 에러’, 공간 맞춤형 음악생성 프로젝트 ‘에트모: 공간생성음악’, 팬과 아티스트가 1:1 일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셀럽 봇’ 등이었다.

사실 K팝이 한류 붐을 타고 세계로 뻗어나 가면서 아티스트의 활용은 업계에 화두가 됐다. K팝 콘서트가 인기를 누리지만 아티스트들은 한번에 한곳만 갈 수 있으니, 아티스트들 재현한 홀로그램 공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런 고민이 심화되고, 코로나19로 온라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두된 것이 아바타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영화 ‘아바타’(2009)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쉽게 아바타는 나의 캐릭터를 담은 일종의 분신이다.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활동이 많아지는 이때, 바쁜 스케줄을 대신할 수 있는 K팝 아이돌들이 아바타로 대체하는 것이다. SM은 이번에 에스파를 순차적으로 소개하면서, 멤버들과 연관한 가상 세계 속 아바타의 공간인 ‘플랫(FLAT)’을 설정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SM의 획기적인 시도를 반기면서도, 일부에서는 걱정스런 목소리도 낸다. 싱어송라이터들을 매니지먼트하는 소속사 관계자는 “스타와 팬의 사이는 유대감은 인간적 감정을 느끼는 공감대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분신인 아바타와 제대로 관계 설정이 가능할 지가 궁금하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장기간으로 볼 때 사건, 사고가 많은 아이돌 업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본다. 아이돌 업계에 몸 담았다가 다른 분야에 몸 담고 있는 관계자는 “스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획사는 거의 없다. 아바타가 스타가 되면, 관리·감독이 확실해지면 매니지먼트 업계에 혁신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고 예상했다.

이수만 프로듀서는 세계문화산업포럼에서 에스파의 스토리텔링에 대해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아티스트 멤버와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아바타 멤버가 현실과 가상의 중간 세계인 ‘디지털 세계’를 통해 소통하고 교감하며 성장



에스파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전했다.

‘현실세계’의 멤버들과 ‘가상세계’의 아바타 멤버들, 그들의 곁에서 서포트해주고 조력자 역할을 하는 ‘가상세계’ 속의 신비로운 존재들이 그룹의 멤버로서, 현실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신개념 그룹이라는 설명이다.

아바타에 대한 관심은 SM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내로라하는 K팝 가요 기획사들은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 AR 아바타 서비스인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는 앞서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와 ‘블랙핑크’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로부터 총 12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최근 JYP로부터 50억원의 투자도 유치했다.

앞서 지난 9월 블랙핑크가 제페토에서 연 가상 팬사인회에는 4600만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다녀갔다. 네이버제트는 곧 JYP가 보유한 IP를 콘텐츠화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트와이스 멤버들의 댄스 퍼포먼스가 제페토 3D 아바타로 구현됐는데, 관련 티저 영상은 일주일 만에 조회수 170만건을 넘기기도 했다.

결국 SM의 다양한 실험은 ‘문화 제국’을 건

설하는 데 있다. 그건 셀럽을 통해 만들어지는 콘텐츠, 즉 지식재산권(IP) 산업의 활용이다.

세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공룡으로 통하는 디즈니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 등 이미 보유한 IP로 다양한 세계관을 지닌 콘텐츠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충성도 높은 마니아들을 양산하고 있다. 아이언맨을 비롯한 마블 캐릭터에 흥미를 갖기 시작한 대중은 끊임없이 연결되는 이야기와 콘텐츠에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다.

SM과 이수만 프로듀서가 샤이니, 엑소, NCT, 웨이션브이 멤버들로 연합그룹 ‘슈퍼엘’을 만들며 자사 내 연결 IP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에스파의 아바타 경우, 온라인에서 활동이 좀 더 자유로ومان큼 콘셉트와 이야기를 좀 더 쉽게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 프로듀서는 “신인 걸그룹 에스파를 통해 미래 엔터테인먼트 세상을 위한 비전인 SMCU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음악을 기반으로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북미, 남미, 유럽 등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 K팝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손연재, 리듬체조 선수 은퇴 뒤 일상은...‘온앤오프’

2년 차 새내기 CEO로 활동...수강생들에게 K팝 안무 수업 진행



인생의 새로운 2막을 개척하고 있는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의 일상이 케이블 채널 tvN ‘온앤오프’에서 공개됐다.

14일 밤 방송된 ‘온앤오프’에서 손연재는 리듬체조 선수 은퇴 후 일상을 공유했다. 아침 기상 후 연함을 뽀내며 모닝 스트레칭을 한 뒤 곧바로 마들렌 베이킹을 시작했다. “빵 구울 때 힐링이 된다”면서 조리 도구를 찾지 못하

는 등 어딘가 어색한 모습으로 반전 매력을 드러냈다.

마들렌을 완성한 후 정성껏 포장해 일터인 리듬체조 스튜디오를 찾았다. 2년 차 새내기 CEO로 활동 중인 손연재는 수강생들에게 K팝 안무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을 마치고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노래로 리듬체조와 댄스를 결합한 안무를 구상하며 열정 가득한 모습을

보여줬다. 리듬체조 스튜디오를 연 지 1년이 됐다는 손연재는 “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감당할 부분이 많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매달 28일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월급 날인데, 제 생일도 5월 28일이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 우울했다”고 했다.

손연재는 은퇴 이후 ‘단 맛’에 빠졌다는 고백도 했다. “빵을 너무 좋아했는데, 못먹었다. 은퇴하고 나서 7kg이 쯤었는데, 이제 먹을 것에 집착을 안하니깐 다시 빠지고 있다”고 웃었다.

무엇보다 리듬체조의 대중화를 위해 애쓰는 손연재의 모습이 강조됐다. 그녀는 “대중이 리듬체조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온앤오프’에서는 MC 김민아는 새롭게 전세살이를 시작한 보금자리를 소개했다. 가수 성시경의 제과 기능사 자격증 도전기도 공개됐다.

이날 방송은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 기준 2.6%를 기록했다. ‘온앤오프’는 바쁜 일상의 본업(ON) 속에서도 ‘사회적 나와 거리두기 시간(OFF)’을 갖는 스타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담은 ‘사적 다큐’ 에너지를 표방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40분 방송한다.

‘BTS 신상 굿즈 사자’...롯데백화점, 팝업스토어 연다

방탄소년단(BTS)의 새 팝업스토어가 전국 4개 지역에서 문을 연다.

롯데백화점은 빅히트아이피와 파트너십을 맺고 오는 21일부터 서울 분점, 부산 광복점, 대구점, 광주점에 방탄소년단 공식 팝업스토어 ‘BTS POP-UP:SPACE OF BTS’를 선보이기로 했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선 현재 온라인과 쇼케이스로 운영되고 있는 ‘BTS POP-UP:MAP

OF THE SOUL’ 등 기존 팝업스토어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신상품을 대규모로 선보일 예정이다.

최초로 공개되는 베이직(BASIC) 테마 상품은 누구나 어울릴만한 맨투맨티셔츠·티셔츠·재킷 등 데일리 패션 아이템으로 구성됐다. 방탄소년단 대표 곡인 ‘DNA’ ‘MIC Drop’ ‘IDOL’ ‘작은 것들을 위한 시’ 테마로 만들어진 신상품도 순차 공개될 예

정이다. 대표 상품은 후드티·다운재킷·셔츠 등과 펜·스티커 등 문구류, 인형·스노우볼 등 토이류 등이 있다.

팝업스토어는 4점점 모두 내년 2월28일까지 약 3개월 간 운영된다.

코로나 사태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장 예약자에 한해 순차 입장할 수 있다.

빅히트, 10대 힙합 경연대회 개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10대 힙합 경연대회 ‘히트 잇 8 힙합 컴페티션’(HIT IT 8 HIP HOP Competition) 참가 신청을 다음달 2일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2002~2011년에 출생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경연은 온라인 예선과 오프라인 본선, 세미파이널, 파이널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본선의 심사는 래퍼 비아이, 세미 파이널과 파이널 심사는 빅살과 밀릭이 맡는다. 1·2·3위 입상자(팀)에게는 각각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의 상금을 준다.

래퍼 윤병호, 마약 자수?...“중학생 때부터 약물중독”

SNS에 장문의 글·양성 반응 나온 마약 검사 키트 사진 올라와

힙합 경연 프로그램 ‘고등래퍼’와 ‘쇼미더머니’ 등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래퍼 불리다 바스타드(본명 윤병호·20)로 추정되는 인물이 중학생 때부터 약물 중독을 겪었다고 고백하며 경찰에 자수했다고 밝혔다.

13일 ‘f.t.w_independent_records’ 인스타그램 계정에 불리다 바스타드로 활동한 래퍼 윤병호로 추정되는 인물이 쓴 장문의 글과 양성 반응이 나온 마약 검사 키트 사진이 올라왔다.

그는 “2013년 기침약 성분의 코데인이라는 아편 계열 마약류부터 대마초와 스카이스 등 중학생 때부터 약물 중독이 굉장히 심한 상태”라며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던 착각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등래퍼 출연 이후 갑자기 얻게 된 유명세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엘에스디와 엑스터시, 코카인, 케타민 등 구할 수 있는 약물이란 약물들을 다 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로폰과 헤로인, 펜타닐 등 너무 많은 마약들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마치 찢어지는 상처를 주게 됐다”며 “‘갱생’이란 프로그램 이후 마약을 끊으며 끔찍한 통증과 급단 증상을 겪었지만 제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마추는 게 제일 고통스러웠다”고 썼다.

그는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마약을 끊은 상태에서 치맛을 받기 위해 글라인더에 남아 있던 대마초를 피운 후 2020년 11월11일



자수를 하게 됐다”며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고 소변에서 THC만 양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 오래돼 나오지 않을 마약들도 처벌받기 위해 형사님께 증거 사진들을 직접 제출해서 보내드렸다”며 “너무 많은 신뢰를 잃은 것을 알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작성자는 “제 행동들로 인해 상처 받으셨던 모든 분들께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며 “모든 처벌을 받고 맛있는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은 윤병호가 기준에 사용하던 계정과는 다른 계정에 올라왔다는 점에서 누리꾼 사이에 진위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그는 “사정상 시약 검사 결과 사진은 내려야 할 거 같아 본문은 삭제했다”며 “치욕이자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